

[김대중 골프교실⑥]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下>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

등록 2020.10.27 11:02:50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렌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0.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1.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2.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3.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4.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마지막이 캐디위탁교육센터다.

캐디위탁교육은 전통적인 골프장 신입 캐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돈이 없으면 캐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졌다.

골프장에게는 안정적인 캐디 공급을, 그리고 교육생에게는 자기부담금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습을 위주로 하는 인턴 캐디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연계된 골프장에 취업하게 된다.

캐디위탁교육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취업과 연계된 인턴 캐디 제도는 실질적인 면에서 골프장과 캐디 지망생 간에 상호 윈윈(Win-Win)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턴 캐디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각 교육생들에게 맞는 평가시스템 그리고 취업이 연계된 골프장이다.

이 때 배우게 되는 것은 기초 과정과 실무 과정으로 나뉘어진다. 기초 과정에는 골프 이론과 골프 룰, 클럽 서브, 그린 서브, 점수 계산하기를 배우고, 골프 이론 시험과 골프 룰 시험, 카트 운전 테스트를 통과한 교육생에 한하여 골퍼와의 실습 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습 라운드 과정 중에는 클럽 매칭과 클럽 핸들링을 포함한 클럽 서브, 그린 서브, 경기 진행, 고객 4인의 점수 계산하기, 카트 리모컨 사용 방법, 캐디 수첩 사용하기, ICT를 활용하여 음식 주문하기 등에 관한 실무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실습을 통해서 스킬이 부족한 교육생들에게는 교육자들이 실습과정에 따라붙어서 경기 진행 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친다.

고객, 골프장, 교육기관의 다면평가를 평가를 통해서 교육생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 때, 교육생 개개인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과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어야 인턴 캐디 제도를 운영하기 용이할 수 있다.

[표. 캐디업무를 배울 수 있는 곳에 대한 비교]

	기간	비용	퇴사율(%)	교육 특징	비고
골프장 (경기팀, 경기과, 경기운영팀)	약 3개월	무료	약 80~90	동반 라운딩 위주	주로 겨울에만 모집 어깨너머 교육
캐디 양성 센터	약 10일	약 200만원	통계치 없음	기초 교육 위주	수료 후 연계골프장으로 이동 하여 약 1~2개월간 재 교육
캐디 위탁 교육 센터 (인턴 캐디)	약 6주 ~10주	자기 부담금 없음	약 40	고객/교육/동반 라 운드 위주	수료 후 연계골프장에서 코스 교육만 받음

▲ [표= www.golf-n.co.kr]

참고로, 캐디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골프 카트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디가 필요했다.

그런데, 1960년대 개발된 골프 카트는 캐디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부각됐다. 그 이유는 골프 카트를 도입하고 카트 사용료를 받으면, 골프장 매출과 상관없는 캐디피를 받을 필요없이 카트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 입장에서 카트의 도입은, 신규 매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긴 사람은 템오산터 골프클럽(Tam-O-Shanter Golf Club)의 CEO 조지 메이(Gorge S. May)였다.

메이는 골프장의 모든 캐디를 해고한 후 골프 카트를 대량 구매해서, 캐디없이 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골퍼들이 골프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골프장 내에 모든 러프를 짧게 잘라버렸다.

처음 개발된 골프 카트는 아래 그림처럼 2인승으로 개발되어 라운드 중에 힘들게 걸어 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카트에 앉아서 두명의 골퍼와 그들의 골프클럽을 운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시대 변천에 따른 골프 카트(일명 골프 카)의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야마하 카트는 1975년, CT&T는 2002년에 생산을 시작하였다.)



▲ 1960년대 초창기 골프 카트 모습으로 삼륜 카트 모델임



▲ 1980년대 골프 카트로 현대적인 카트와 매우 닮아 있음



▲ 2018년에 나온 최신 모델 골프 카트

위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의 골프 카트는 골퍼가 직접 운전하는 2인승 모델의 골프 카트로 미국의 퍼블릭 골프장에는 캐디 대신 카트가 맹활약하고 있다.

다음에는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렌드(Trend): 인턴 캐디 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프로필] 김대중

-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